



**마음은 IMF,
행동은 OECD**

우울한 얼굴로 사는 것 보다는 밝은 얼굴로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눈만 뜨면 신문, TV는 물론 두사람 이상이 모이는 자리이면 톱기사는 다름아닌 IMF시대이다.

UR이라는 영어 약자가 등장하여 등골을 오싹하게 한 이후 WTO를 거쳐 IMF라는 용어가 어느새 유행어가 되다시피하여 밝은 표정을 우울한 표정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렇다면 IMF는 만든 것인가, 만들어진 것인가, 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놓고 이미 정치권이 책임소재를

가린다 하니 우리 양계인들은 그 결과를 보면 뿔터이고 IMF와 양계업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 지적을 해두고자 한다.

IMF란 말 그대로 국제통화기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수출에 기반을 두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본래의 화폐도 있으나 각국이 통용하는 미국의 화폐, 달러를 늘 확보하고 있어야 경제가 원활히 운용이 된다는 것 짚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이 달러의 보유가 바닥이나 원자재 수입이나 상환이 도래한 외채를 갚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IMF로부터 긴급히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IMF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운용해 온 각종 경제운용방

식을 개선하여 돈을 벌며 약속한 기간내에 차입금을 갚으라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조직을 개편하고 관행을 뜯어 고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식에서 세계인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개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보니 고통을 감수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 호수에 있던 배가 갑자기 바다에서 항해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시련을 맞았다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양계업도 편안할리만은 없다. 같은 맥락에서 구조를 조정하여 생존할 수 있는 장·단기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각 부문별로 역할분담은 커녕 공급이 난해했던 사료가 가격은 올랐지만 다소 공급이 원활해지자 국내의 상황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즉 마음은 IMF에 살면서 행동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당시 그대로인 셈이다.

국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고금리가 지속되며, 긴축재정으로 들어가 이로인해 대량 실업, 소득감소, 물가상승 등 소비로 볼 때에는 악재가 줄줄이 겹쳐있는데 지난 12월의 사료생산량을 보면 양계인들은 고성장, 고소비 시대를 방불케 하는 생산의욕을 보였다.

이로인해 산물가격은 생산비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계란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이어서 피해는 덜했으나 종계업과 육계업은 서로의 눈치작전이 업계를 황폐화시키는 촉진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마음은 IMF이나 행동이 OECD였기 때문에 경영사정이 긴박한 단계까지 온 종계나 육계업은 서둘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국가부도 위

기 사태와 유사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채란업도 시기적으로 계란생산량에 변수가 생기는 때이므로 같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소비시장에 맞는 생산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유통개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양계산물의 유통구조는 생산자와 상인이라는 양자관계 위에서 매우 단순한 듯한 인상을 주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주 복잡한 역학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생산자와 상인과의 힘의 균형이 아직까지는 팽팽하게 맞서 있다는 점이다. 업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 생산자와 상인과의 균형을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깨뜨릴 수 있는 기회가 모색되지 않았던게 사실이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자본 비율이 100%대를 점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10%대 이하에 머무는 농가까지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시설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의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즉 자본력이 미약할수록 대개의 농가들은 사료구매시 외상을 쓸 수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료회사가 위험부담을 떠안고 산물을 출하해서 자금을 회수한다는 조건은 있지만 이자가 계산이 되어 있어 사고만 없으면 서로가 좋은 사업으로 해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환율의 상승으로 사료공급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일단 사료업체와 농가의 밀월관계는 금이가기 시작하여 신용이 낮거나 외상

외형이 큰 농가는 현금구매로 바뀌면서 일부는 공급 중단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아 생산을 줄이거나 부랴부랴 현금을 구하느라 진땀을 뺀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로인해 사료나 약품 등은 외상거래에서 현금구매 쪽으로 거래 형태가 대폭적으로 바뀌어 결국 부담을 덜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계란이나 닭고기의 경우에는 과거와 변함없이 거래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자신만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모두가 생산을 늘리는 결과 때문에 상인과 힘의 균형을 깨뜨려야 하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비가 대폭 올랐음에도 출하가격은 예전보다도 더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는 것은 유통구조의 개선은 커녕 오히려 자금력 있는 상인에게 일부 농가는 운영자금을 빌어야 하는 경우까지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어 선뜻 유리한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있다보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제값받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양계업자들의 푸념이다.

이 모두가 나는 경험이 많고 주변 여건이 변화되어도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독불장군식의 경영에서 궁극적으로는 생산량 증가라는 고질적인 요인 때문에 거래질서 확립은 커녕 오히려 양계업자만 고립되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국가적인 부도위기로 돌출변수가 생겨 생산량만 적절히 유지하면 소비자나 유통업자도 생산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상승은 받아들여야 하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생산과잉의 해소를 소비를 전제로 다시 생각하여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나갔으면 한다.

고가 원자재비 하에서 생산비 개념

모든 양계인들의 마음은 조급하다. 우선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사료를 비롯한 수입원자재비의 상승으로 생산비는 높아졌으나 수입도 함께 어렵다는 판단 아래 그간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보상심리가 입추에 연결되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양계산물 생산비 중 절대비율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이 '97년 8월 대비 약 40% 이상 상승한 시점에서 농가마다 생산비 차이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원자재비의 가격수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생산성에 따라 생산비차는 폭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입추하느냐에 따라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만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보니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양계농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양계농가에 따라 사정은 조금씩 다르나 병아리 육추시부터 기름값과 사료비라고 생각된다. 입추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도 두 말할 나위없이 중요하지만 원자재의 가격상승이 대폭 이루어진 상황 하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더할 나위없이 중요한 경영관리 포인트가 되는 셈이다.

환율위기, 기업구조조정, 경제성장률 둔화, 물가상승이란 정신없이 돌아가는 국내경제 변화에 너무 민감하여 생산성 향상은 잊어버리고 입추적기만 찾기위해 동분서주하다 보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양계**